



**[금융·마켓]**  
주담대 금리  
7% 돌파 가능성  
다중채무자 발동동  
1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596.56 (-14.25)	코스닥 856.14 (-4.70)
금리 (국고채 3년) 3.046 (-0.016)	환율 (원·달러) 1276.40 (+2.40) (10일)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청와대 시대 청산, 용산 시대 개막  
사전 초청 4만여 명 취임식 운집  
文·朴 전 대통령 등 정계인사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영욕의 ‘청와대 시대’를 청산하고 ‘용산 시대’를 열어젖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5년 임기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2~9·L8면>

윤석열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사회 전반에 물고 온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삼고(高)현상(高물가·고환율·고금리)’과 ‘삼저(低)현상(저성장·저출산·저소득)’ 등 대내외적 ‘다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이날 취임식엔 사전에 초청받은 4만여 명의 국민들이 운집했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당 대표와 5부 요인이 등이 정계 인사로 참여했다.

경제계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이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슬아 쉐리 대표 등 국내 10개 스타트업 대표도 참석했다.

할리마 아랍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텍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푸리 캐나다 상원 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위기 빠뜨려  
보편적 자유의 가치 확대로 해결

삼저·삼고 등 다중위기 극복 숙제  
과학·혁신 등으로 도약·성장 도모

세계 각국의 외교 사절도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에 맞춰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국민 초청석 사이를 걸으며 국민들과 인사했다. 김건희 여사도 흰색 정장을 입고 동행했다.

20명의 ‘국민 희망 대표’들과 무대에

오른 윤 대통령은 대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로운 정치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면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위기의 반도체… 尹 정부 초격차 전략 ‘골든타임’ 잡을까

설비 투자시 과감한 인센티브 등  
110개 국정과제서 전폭지원 약속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초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등 수차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국정 과제를 보면 윤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달러로 2021년(1280억달러)보다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연합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반도체 업계에 설비투자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

허가 신속 처리, 투자지원 확대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과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AI반도체와 팹리스 기업 지원과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이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실제 업계가 요구하던 수준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던 상황, 윤 정부 인수위원회는 업계 요구 사항을 수렴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했다.

인선에서도 반도체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윤 대

통령은 초대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장으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으로, ‘초격차’라는 저서로도 잘 알려져있다.

반도체 업계는 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모처럼 투자에 본격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면에 계속>

/김재웅기자 juk@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6 포스코 (12·13면)**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양산 도착한 文 “주민들께 전입신고… 완전 해방”

/사진 뉴시스

▲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폐·휴업키로… “조용히 내조 전념”

▲ ‘똥따방’ ‘철새’ 비판에… 안철수 “자기 생각대로 남 보기 마련”

▲ 민주, ‘한동훈 부적격’ 재확인… “강행하면 부담 안을 것”



▲ 국힘, 안철수 분당갑·이재명 대항마 윤형선 계양을 공천

▲ 이재명 “윤석열 정부,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 열어달라”

/사진 뉴시스